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 (ojh@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한·중 정상회담 개최
2.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3.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평가

주요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중인 12월 14일 조어대 국민관(釣魚台国賓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한·중 수교 25주년 성과 평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전 문제, 한·중 경제협력 분야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진행되었음.
 - 아울러 방중 기간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이, 충칭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에서는 한국의 신북방 정책·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4대 협력 방향이 제시됨.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중 협력의 다양화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채널 강화에 합의함.
 -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사업 재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신 분야의 협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 △ 일대일로 건설 협력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그 밖에 인문교류 및 동계 올림픽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정상회담 종료 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교류 및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에 관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을 포함해 정부간 7개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
- 중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 언론들도 대체로 한·중 수교 25주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리커창 총리는 양국간 경색된 경제협력 채널을 재활성화와 MOU 체결 후 후속사업 이행 성과를 기대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
 - 한편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계적 처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함.
 - 양국은 발전전략 연계와 ‘일대일로’ 공동 추진,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글로벌 산업 협력 추진 등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FTA 서비스 협상 개시, 한·중 산업단지 추진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1. 한·중 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중 기간(12월 13~16일) 중인 14일 조어대 국빈관(釣魚台国賓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정상회담은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임.

표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개요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17.7.6 (시진핑 주석)	·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 · 정상 교류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 계속	G20 정상회담(베를린)
2017.11.11 (시진핑 주석)	· 문재인 대통령 방중 결정(12월) ·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10.31) 내용 평가	APEC 정상회담(베트남)
2017.12.14 (시진핑 주석)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4대 원칙 합의 · 경제협력 강화: 중단된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등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베이징)

자료: 각종 자료 종합.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수교 25주년에 대한 성과 평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전 문제, 한·중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 형식으로 ‘한·중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고, 중국은 외교부 사이트¹⁾를 통해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 이어 15일에 개최된 리커창(李克強)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양국관계 정상화’에 공감하고, 경제·사회·체육 분야 등 양국간 다양한 교류 협력 및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인 13일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고, 16일 충칭시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 연설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를 위한 4개 협력 방향을 제시함.²⁾

1) 「习近平同韩国总统文在寅举行会谈」(2017. 12. 14), 『外交部』,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gjldrh_674881/t1519568.shtml.

2.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 한·중 정상회담 언론 발표문 주요 내용

■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언론 발표문에서는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전쟁과 혼란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발표함.

■ 한·중 양국은 협력 영역의 다양화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 교류 중심이었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상간 소통, 고위급 교류, 실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한·중 간 정치 소통 강화, 양국 입법기구와 정당 간 고위급 대화 강화,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사업 재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신분야의 협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 △일대일로 건설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경제무역, 녹색생태산업, 환경, 위생, 농업, 에너지, 동계올림픽 등 영역에서 양자 협력 문건에 서명하였다고 간단히 언급함.
- o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분야에서 한·중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함.

■ 그 밖에 인문교류 확대와 동계 올림픽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문재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의 회동에서 2018년, 2022년을 ‘양국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고, 리 총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2) 본고의 pp. 9~10 참고.

표 2. 한·중 정상회담 언론 발표문 주요 내용 비교

분야	한국 측 발표	중국 외교부
양국관계 평가	-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함.	- (시)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수교 25주'간 양국은 여러 영역의 교류협력에 있어 성과를 거뒀으며, 양국이 커다란 이익을 공유했다'고 평가함. - (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국 수교 초심을 중시하며, 양국 핵심이익과 중요한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시종 일관 안정적이고 올바른 궤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 한국과 중국은 양국 정치 교류 및 민간 우호, 각계각층의 교류, 협력, 국제 및 지역 간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 한·중 협력의 호혜공영의 기초 위에 새롭게 발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가 될 수 있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함.	- 시진핑 주석은 중·한 수교 25주년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
한반도 평화·안정 을 위한 4대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양국 정상은 한반도 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시진핑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되며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함.
한·중 간 고위급 소통 강화	- 정상간 핫라인 구축과 긴밀한 소통 지속 -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양국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으로 확대 -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	- 한·중 상호 신뢰 기반의 정치 소통 강화 필요 - 고위급 교류가 양국 관계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발하: 양국 입법기구 및 정당 간 교류 기제 등 고위급 대화 강화 - 실무협력을 심화로 상호공영 실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협력	- 문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 활성화 방안 제시	-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 분야의 공동 이익을 보호해야 함. - 중국은 한국이 평화 추구 및 교류소통을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고, 중국도 한반도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평화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완화와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램. - 문 대통령은 '한국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으로 판단,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 강조
	-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함.	

표 2. 계속

분야	한국 측 발표	중국 외교부
사드 문제	-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람	-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람.
	-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계를 잘해나가자”고 언급	- 시 주석은 얼마 전 모두가 아는 원인에 중·한 관계에 일부 어려움(波折)이 나타났는데, ‘핵심이익 기초 위에 미래를 개척하는데 이를 참고해야 함’이라고 평가함.
	- 문 대통령은 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
	-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운명적 동반자이며, 최근 양국간 일시적 어려움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임.	-
경제협력	- 양국간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 -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투자협력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함.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정부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추진	-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경제무역, 녹색생태산업, 환경, 위생, 농업, 에너지, 동계올림픽 등 영역의 양자 협력 문건에 서명함.
	- 신(新)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기로 함.	- 중국은 한국의 ‘일대일로’ 건설 참여를 환영하고, ‘일대일로’와 한국 발전전략과의 연계 추진, 상호 호혜공영의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 연구하여 공동발전 실현을 희망함. -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를 희망함. 한국은 중국 및 기타 국가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인류 공동체를 구축하기를 희망함.
인문교류 확대	- 양 정상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문화·스포츠·인문·청년 교류를 지속 확대함. -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간의 교류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감.	- 인문교류 촉진과 국민 상호이해 증진이 필요함. - 양국이 청년, 교육, 과학기술, 미디어, 체육, 위생 지역 등 영역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중·한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 중국의 사적지 보호 지원을 평가 및 지속적 지원 당부 - 시 주석은 중국군 유해 송환에 사의 표명하고,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사업 계속 협력	-

표 2. 계속

분야	한국 측 발표	중국 외교부
동계 올림픽 협력	-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공동 협력 -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초청,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임. -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위해 공동 노력	-
기타	-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강화 - 특히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제고	-
	-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 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	-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 난징 대학살 사망자 국가 애도일을 맞아 추모와 애도를 표하며, 중국 인민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언급함.

자료: 청와대 및 중국 외교부 사이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나. 정부부처간 MOU 체결

■ 정상회담 종료 이후 두 정상의 임석하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 △미세먼지 대응 등에 관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MOU △에너지 협력 MOU △친환경·생태산업 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 △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을 위한 MOU △보건의료 협력 MOU 갱신 등 총 7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외에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무역구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표 3. 한·중 정부 부처간 체결한 7개 주요 MOU

MOU	주요 내용	기대효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 (산업통상자원부-상무부)	- 한·중 FTA 규정에 따라 양국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 -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한·중 간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	-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 도모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	- 양국은 평창올림픽에서 중국 오피서버와 파견 프로그램 운영, 2018년 6월 베이징에서 평창올림픽 경험 설명회 개최 등 지식 전수에 협력하고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MOU 체결 공개를 통해 중국의 티켓 구매를 유도

표 3. 계속

MOU	주요 내용	기대효과
2018~2022 환경협력계획 MOU (환경부-환경보호부)	- 2018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 계획 수립·협력을 진행(한·중 환경협력센터 베이징 설립) -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계획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상시 협력 채널을 마련	-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계획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상시 협력 채널 마련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 (산업통상자원부-국가에너지국)	- 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 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 한·중 정부간 국장급 에너지 협의 채널 신설 등	- 신북방·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모델링 조성
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을 위한 MOU (농림축산식품부-농업부)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공동 예방 및 방역에 협력, 양국 국장급 협의체 설치 - 구체적으로는 AI 공동 연구와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 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등록절차 간소화, 전문가 교류 등 동물용 의약품 분야까지 협력 확대	- 한·중 간 AI, 구제역 등 초국경적 동물 질병 공동 대응을 포함한 동물위생 및 검역분야에 있어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동력 확보
친환경·생태산업 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공업신식화부)	- 양국간 친환경 산업발전 협력방안 논의 추진 - 한·중 간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교류 협의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협력 이행인(로드맵)을 논의	- 중국의 청정 생산기술, 에너지 효율과 절약 기술시장에 우리기업 수출 및 진출 지원, 관련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창출
보건의료 협력 MOU 갱신 (보건복지부-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	- 양국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UHC), 헬스케어시스템에서 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 안전,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healthy ageing), 감염병 및 암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	- 양국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관련 협력 추진 기반 강화

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중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간 체결.

자료: 청와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thebluehousekr/221163555039>) 등을 바탕으로 정리.

■ 이외에 바이오 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산업에서의 협력 및 한·중 고위급 기업인 정기교류 협력 채널 구축 등 기관과 기업 간 다수의 MOU를 체결함.

- 아울러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무역,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양국 기업·기관은 전자상거래(1건), 에너지(3건), 금융(2건), 바이오(3건), 신에너지자동차(2건), 로봇(2

진), 산업기술(2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섬유·의류(1건), 가전·기계(2건)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및 민간 대화 채널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MOU)(1건)를 체결하여 경제협력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다.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 제시

1) 한·중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새로운 미래 25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시함.

- 3대 원칙으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민의 우호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을 제시함.
- 8대 협력방안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교역 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역에 따른 질적 성장 도모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환경 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함.
- 아울러 과거 25년 동안에는 우정과 협력의 물질을 만들었다면 미래 25년은 미래 공동 번영의 배를 띄워나아가야 하며,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함.

표 4.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한·중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방향

구분	협력 방향	주요 추진사업
3대 원칙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경제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 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과 분야로 확대하고, 상호보완적 협력, 경쟁적 산업의 제3국 공동진출로 호혜상생의 협력구조 조성
	양국민의 우호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	*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
8대 협력 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 한·중 FTA 이행 점검, 검역 및 통관 협력,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 등 *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MOU 체결 * 정부 부처간 협의 채널 및 산업별(반도체, 철강) 민간 협의 채널 가동
	교역의 질적 성장 도모	* 교역 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역 확대 *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상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 4차 산업시대의 관심분야에서 협력 확대 * IOT, 드론, 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협력 확대 * 신세대(5G) 통신 운용 협력,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표 4. 계속

구분	협력 방향	주요 추진 사업
8대 협력 방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 한국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전략과 중국 신상태하의 만중창신 만중창업 연계 * 벤처투자 공동기금 조성(1억 달러)
	에너지 분야 협력	*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 *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신기술 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협력 * 신에너지 분야 협력 MOU 체결
	환경 분야 협력	*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환경협력 강화 * 미세먼지, 대기정화 및 저감기술 협력, 대가수질폐기물 처리, 청정 생산공정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조성 협력 강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 일대일로 건설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및 싼남방정책의 연계 * 제3국 공동 진출, 제3국 투자기금을 통해 지원(수단 산공항, 두바이 팜 게이트웨이 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건설 공동 진출 경험) * AIIB, NDB를 통한 인프라 건설 참여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서울-베이징 1일 생활권 * 중풍(中風)과 한류(韓流) 공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 문화와 비즈니스의 결합 * 상호 많은 유학생(재중 7만 명의 한국 유학생) 보유 →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자료: 한·중 비즈니스 포럼(2017.12.14, 베이징) 연설 정리.

■ 문재인 대통령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 제안에 대해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는 한·중 경제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5가지를 제안함.

- 양국 발전전략의 연계: 중국은 19대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고, 한·중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일대일로 분야에서 협력 필요
- 양국간 실무적 협력의 질적 제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지속적 확대와 중국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에 대한 지원 요청, 5G, 빅데이터 등 신분야 협력 확대
-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중국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 양국의 우호적인 민의를 기초로 한 인문교류 유대 강화
- 국제기구 및 역내 평화 협력 확대: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G20, APEC, 10+3, RCEP 등에서 협력 강화

2) 한국의 신북방정책·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4개 협력 방향 제시

■ 문 대통령은 12월 16일 중국 충칭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및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 연설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남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4개 협력 방향을 제시함.

- 첫째, 중국과 한국, 역내 국가 간의 연결성을 강화함.
 - o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간 연결을 통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 연계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항공, 해상 운송망이 사통팔달을 이루게 함.
 - o 친환경에너지 육성, 초국가간 전력망 연계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크로드도 구축함.
- 둘째, 한·중 기업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함.
 - o 한국의 무역보험공사와 중국 건설은행이 양국 기업의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o 한국의 산업은행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과 공동 출자하여 '신흥아시아 펀드'를 조성한 것처럼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함.
 - o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와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함.
- 셋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의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함.
 - o 전자 통관·무역 시스템 도입, 통관·검역 분야에서의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함.
 - o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시,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함.
- 넷째, 충칭을 비롯한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함.
 - o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5개 성과 경제협력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중국 33개 성 및 성급시와 640여 건의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있음.

3.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평가

가.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평가

■ [중국정부의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그동안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리커창 총리는 ‘경제 무역 부처간 소통 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o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 에너지 보건 등 MOU를 체결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언급함.
-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은 양국 관계 회복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방중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본다”고 언급함.
-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양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하에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12.13).
-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 방면에서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외교적 루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유지해하는 것은 한반도 관련 국가의 대공약수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고 강조함(12.15).

■ [중국 언론의 긍정적 평가] 대부분의 중국 언론은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신화사(新华社)는 “2015년 한·중 FTA를 계기로 한·중 간의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지도자가 서로 관계를 증시하면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경제도보(中国经济导报)』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양국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평가함.
- o 문재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도했던 노력을 전하면서, 이번에 충칭을 방문하는 의미를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전함.
- o 사드배치는 한국정부의 오판이라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중을 통해 지역 안보와 경제협력 문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 o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아침에 서민적인 식당에 들어가서 아침식사를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이동식 결제 시스템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함.
-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대국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가 발전해야 함을 강조함.

■ [중국 언론의 부정적 평가] 이번 방문으로 인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방중 과정에서 불거진 경호원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함.

- 중국 외교부는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경호원은 한국과 관련된 조직의 경호원으로 밝혀졌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서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람.
- 환구시보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자살골을 넣지 말라”는 기사를 실으며 일부 한국 언론들이 제기했던 중국의 홀대 논란에 대해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o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라며 양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고 언급
- o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일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

나.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내 평가

■ [중국 외교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문제(사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발표함.

■ [전문가 평가] 중국의 학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인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점차적으로 상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원함.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한·중 정상의 이번 회동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한·중 군사 당국이 세부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
- 랴오닝대학 리자청(李家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사드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 판구싱크탱크(盘古智库)의 량야빈(梁亚滨) 교수는 “한국정부의 ‘삼불(3不)’이행이 한·중 간 사드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확실하고, 향후 한·중 관계 정상화가 예상된다”라고 평가함. 또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방중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 함.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 왕권성(王俊生) 부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한·중 관계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소통 강화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 등의 목적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으며, 아울러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으로 ‘일대일로’에 대해 한국이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중국은 사드 관련 문제의 단계적 처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사드로 인해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음.

- 한국 외교부 장관의 3不 입장 발표(10.31) 이후 3不 1限(3불 1한)을 주장하며,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듯함.
- o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북핵과 미사일 문제, 미·중 간 갈등 등 여러 현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와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표 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 변화

연도	한국의 조치	중국의 입장
박근혜 정부 (2016.7 ~2017.4)	사드 배치 발표 (2016.7.8)	- 중국의 전략안보이익 침해이자 지역 전략균형에 대한 엄중한 손해이며, 사드 배치에 대한 추진 중단 촉구(7.8, 중국 외교부) - (7.24)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 공식 항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2.27)	- 한·미 사드 배치 절차의 전면적 중단 촉구(2.27, 중국 외교부)
문재인 정부 (2017.5 ~현재)	문재인 대통령 당선 (5.10)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축전 게재(인민일보, 5.11) * 중요한 이웃인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간 깊이 있고 전면적인 관계로 발전함.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싶고, 한국과 중·한 관계를 계속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 한·중 관계의 성과를 함께 유지하기를 희망
	일대일로 대표단(5.14) 및 특사(5.18) 파견	-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함.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한국 측에 중국의 중대하고 합리적 관심사에 대한 타당한 해결을 요구함(5.18, 중국 외교부).
	G20 정상회담 (7.6, 독일)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함 (7.12, 사드 시스템 실험 이후).
	임시 배치 완료 발표(7.9)	- 배치 절차의 즉각적 중지와 관련 설비 철수 촉구 -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의 만기 3년 연장 합의(10.13)
	3不 입장 교환 (10.31)	-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하지 않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힘(10.31). -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화 없음. 중국은 한국의 발표에 주의하고 있음(10.31).
	APEC 정상회담 (11.11)	-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에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염원이며,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 양국은 외교 루트를 통해 관련문제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공동 인식을 달성함 (11.11). -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불변함. 얼마 전 쌍방은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11.22).
	외교 장관 회담 (11.22)	-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하지 않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사드 문제를 계속해서 잘 처리해주기를 희망함.(11.22) - 얼마 전 쌍방은 사드 문제의 단계성 처리(阶段性处理)에 인식을 같이함. "말에는 신뢰가,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行必果)"라고 발언 (11.22 왕이 외교부장) - (11.27) 산둥성과 베이징 시가 한국 단체관광 규제 해제

표 5. 계속

연도	한국의 조치	중국의 입장
문재인 정부 (2017.5 ~현재)	한·중 정상회담 (12.14)	- 한·중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후 우호교류와 협력 공영은 한·중 관계의 주선율임. 그러나 주지하는 원인으로 양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 기초가 최근 영향을 받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단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공동인식에 합의함. 쌍방이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나가기를 희망함(12.12).
		- 시 주석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12.14).

정리: 중국 외교부(<http://www.fmprc.gov.cn>).

다.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 내 평가

■ [경제 분야]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현안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³⁾에서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동시에 한국 역시 중국의 3위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 경제의 보완성은 매우 강하고 협력 잠재력도 크다”고 강조함(12.14).
- 양국은 발전전략 연계, ‘일대일로’ 공동 추진,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글로벌 산업 협력 추진 등 영역에서 여러 협력 여지가 있다고 평가함(12.14).
- 아울러 한·중 FTA와 관련하여 한·중 FTA가 지난 2015년 12월 정식 발효된 이후 양국은 3차례 관세인하 조치를 실행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무역협력 심화는 양국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각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유익이 되었다고 평가함.
- 한·중 FTA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2차 협상을 시작하고,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협상을 진행해갈 것이며, 현재 양국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산업단지] 중국 국무원은 12월 15일 산둥성 옌타이(烟台), 장쑤성 옌청(盐城),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등 3개 지역에 한·중 산업원구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한·중 산업원구 설립에 관한 국무원 비준(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韩产业园的批复)」을 발표함.

-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陈凤英) 연구원은 ‘중한 산업단지 건설은 중한 경제

3) 商务部(<http://www.mofcom.gov.cn>),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2017.12.14) .

무역 협력의 주요 성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건설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함.⁴⁾

- 현재 산둥성 옌타이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장쑤성 옌청에는 기아자동차 공장 3곳, 광둥성 후이저우에는 삼성전자, LG, SK 등이 진출해 있으며, 한·중 FTA 체결 당시 상기 지역을 중국 내 한·중 산업 협력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

■ [중국 언론 평가]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중 간의 무역, 녹색 생태산업, 환경, 위생, 농업, 에너지, 동계 올림픽 등 7개 분야의 정부간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제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국간 산업협력 업그레이드, 신에너지 협력, 무연관계 발전 등 5개 정부간 MOU와 19 건의 기관과 기업간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민간 MOU에는 바이오 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산업 및 양국간 민간대화 메커니즘 등을 포함함. KIEP

[참고자료]

청와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thebluehousekr/221163555039>).

「习近平同韩国总统文在寅举行会谈」(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gldtld_674881/t1519568.shtml).

商务部(<http://www.mofcom.gov.cn>).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 (2017.12.14)

중국 외교부(<http://www.fmprc.gov.cn>).

第一經濟日報(2017.12.15), A04면.

한·중 비즈니스 포럼(2017.12.14, 베이징).

(자료정리: 인민대 경제학 박사과정 양광모, 한동균)

4) 『中韩产业园打造合作新高地』, 『国际商报』(2017年12月18日).